

레저스포츠

임변장

레저스포츠는 레저(여가)와 스포츠의 합성어이다. 즉, 레저스포츠는 여가시간에 이루어지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스포츠나 운동경기와는 달리 ①비경쟁적이고 ②개인 위주의 활동이며 ③높은 운동기능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④자연친화적 형태의 스포츠 활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나 운동경기는 개인이나 집단의 ①잠재해 있던 내면의 신체능력을 밖으로 드러냄(신체 발현)을 필수적으로 포함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②역할과 지위가 공식적으로 높고 낮은 서열화를 이루게 되고, 이들 활동에 대한 ③공식적인 발전 과정의 역사와 기록 및 전통이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④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훈련이나 준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레저스포츠는 위의 네 가지 특성 중 신체발현(숨겨져 있던 신체적 능력이나 기량이 겉으로 드러남)을 제외한 여타의 특성이 크게 요구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및 운동경기와 구별된다. 이와 함께 레저스포츠는 ①경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②한층 개인 지향적이며 ③개인의 바람(願望)이나 의지에 따라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고, ④한층 자발적이며, ⑤규칙에 의한 강제가 최소이고, ⑥일상적인 놀이 요소를 대부분 포함하는 활동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스포츠나 운동경기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체육과 레저스포츠는 매우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레저스포츠는 사회체육 프로그램으로서 최적의 활동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체육활동은 레저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저스포츠는 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고, 추구하는 활동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내용이어야 하며, 활동에의 참가는 즐거움을 수반하여야 한다. 특히 주말, 휴일, 휴가 등 여가시간에 집중적으로 참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활동이 극히 비공식적·비경쟁적으로 순수한 여가시간에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활동의 범주를 레저스포츠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쟁적인 스포츠 활동으로서 레저스포츠 활동의 일반적인 사례는 캠핑, 낚시, 사냥, 등산, 오리엔테어링, 하이킹, 자전거타기, 롤러블레이드, 골프, 보트타기(카누, 카약), 스키, 스노우보드, 수상스키, 스카이다이빙, 승마, 세일링, 서핑, 윈드서핑,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아이스스케이팅 등으로 분류된다(임변장, 1992)¹⁾.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경쟁의 대상은 상대편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연 환경, 자연계의 생물체, 절대 기록에의 도전 등 경쟁성은 여전히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에어로빅 체조는 주로 여성층을 중심으로 자신과의 경쟁을 통한 극기, 자신의 미적 감성이나 지향하는 이념을 밖으로 표현하는 여가활동임에는 틀림없으나, 여가 집약성, 자연친화성 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레저스포츠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유보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 임변장(1992). 사회체육과 레저스포츠. YMCA체육논단. 미출판의 인쇄물.